

원통사 망실재산 7천평 찾았다

서울 도봉산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이 2만3천여㎡(약 7000여 평)에 이르는 망실재산을 찾았다. 또한 도봉동 546번지~548번지(약 1448㎡, 약 450평)의 소유자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원통사'로 변경하는 등 삼보정재 수호 노력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장적스님, 국방부 도봉구청 등 동분서주 소유자 명칭 종단으로...모범사례 '귀감'

지난 2007년 10월 원통사 주지로 부임한 장적스님은 소임을 맡은 직후 사찰 망실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환수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29-3번지의 임야 2만3207㎡(7020평)를 환수하고, 도봉구 도봉동 546번지(340㎡, 102.8평), 547번지(288㎡, 87.1평), 548번지(860㎡, 260.2평)의 소유자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원통사'로 변경했다. 망실재산 환수를 위해 국방부, 산림청, 도봉구청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이다.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은 망실재산 환

수 경과와 결과를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총무원에 보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12일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번호 2009가단 27727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이 판결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29-3 임야 23,207㎡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4.7.15 접수 제5010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원통사)는 1920년 12월26일 경기 양주군



장적스님

노해면 도봉리 산 29-03 임야에 대해 소유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에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통사와 지금의 원통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제 이후 현재까지 도봉동에 소재하는 원통사라는 명칭의 사찰은 원고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조선총독부판보에도 도봉동의 옛 지명인 양주군 노해면에 원통사라는 사찰이 하나 존재한다"고 도봉산 원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은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지 소임을 보면서

삼보정재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망실재산을 환수하고, 소유자 명칭을 종단으로 변경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른 사찰들도 원통사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구(舊)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그리고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찾아 망실재산을 환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무원 재무부 장영욱 재산관리팀장은 "이번에 원통사가 찾은 삼보정재는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망실재산 환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재무부를 통해 원통사의 망실재산 환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종단 차원에서 귀감이 되는 일을 했다"면서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통사(圓通寺)는 직할교구 말사로 수락산과 삼각산이 좌우에 위치하며, 한강이 바라보이는 도봉산 최고의 길지(吉地)에 위치한 전통사찰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4대강 살리기 기도에 감동"

총무원장 자승스님, 정토회 관계자 초청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토회 관계자 15명을 초청해 다과를 함께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정토회는 지난 5월25일부터 7월18일까지 55일간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 살리기 기도를 거행했다. 조계사 마당에 마련한 천막에서 진행된 이번 기도에는 정토회원 33명이 순번을 정해 매일 4대강 살리기의 염원을 기원했다.

정토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철야기도를 하는 (정토회)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과 감동을 느꼈다"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원력과 신심으로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율지를 계승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문수스님 49재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면서 (문수스님) 영전에 분향하고, 4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7월27일 정토회 법륜(오른쪽에서 두번째)·유수스님(맨 오른쪽)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대강 살리기 대화마당을 두 차례나 지켜본 사실도 이야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불교계의 국제구호활동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과 사서실장 경우스님, 박기련 총책특보 등이 배석했다. 정토회에서는 법륜, 유수스님, 현희련 에코보따 국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순천 흥선사, 15년째 재소자 독경대회 열어

이 순간 번뇌도 집착도 떨쳐...

한 지역 사찰이 15년째 교도소에 재소 중인 불자들을 위한 특별한 법회를 열고 있어 화제다. 순천 흥선사는 지난 7월27일 순천교도소 강당에서 불자 재소자들이 참여하는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삼귀의로 시작됐다. 먼저 젊은 재소자가 합장을 하며 연단에 올라 공손하게 목탁을 잡어들더니 <금강경>을 독송했다. 이윽고 하나 둘 재소자들은 독경소리에 빠져들고 이내 하나가 됐다. 이 순간만큼은 번뇌와 집착도 다 떨쳐 버리는 듯했다. 강당에 앉은 재소자들은 참가자들의 독경이 끝날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대기석에서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연습하는 재소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대회는 독경·독창·합창의 3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독경 부문에서는 10명의 재소자들이 나와 '회심곡'을 시작으로 <천수경>, <

심요장구대다라니>, <금강경>, <한글전수경> 등을 독경했다. 이어 독창 부문에 참여한 재소자들이 찬불가, 삼귀의, 사홍서원 등을 부르자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흥선사 주지 정환스님은 "세상과 단절된 재소자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환스님은 15년 전부터 교정교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30여 차례의 법회를 주관했으며 50여 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떡, 과일 등을 지원했다. 자매결연사 교화상담 및 교리지도도 150여 차례나 된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정환스님을 비롯해 지역불교계 인사들과 350여 명의 재소자들, 가맹비가 합창단원, 교도관 등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지사는전재훈 기자

'북한산 케이블카 계획 포기' 촉구

전국대책위, 성명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북한산 내 4.2km 구간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발표와 관련, 전국 43개 사회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28일 비관 성명을 내고 "케이블카 설치계획 포기"를 강력 촉구했다. 전국대책위는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케이블카 설치가 탐방객 분산 효과를 가져와 탐방압력을 해소할 것이라는 전제는 현실을 왜곡한 것"

이라며 "케이블카는 현재의 탐방객에 케이블카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대책위는 "우리 사회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국립공원 관리를 맡긴 것은 가급적 현상 그대로의 보전과 후세대로의 온전한 물려줌에 무게를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국립공원 관리권 회수운동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체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중앙총회 직능대표 보궐 9월1일 선출위원회 개최

중앙총회의원 중훈스님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오는 9월1일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스님)는 제14대 중앙총회직능대표 보궐선거 및 직능대표 선출위원회회의를 9월1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불교신문을 통해 공고된 이번 보궐선거의 임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이다. 접수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등록 장소는 중앙선관위 사무처이다. 임후보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해당분야(사회)의 전문성을 갖춘 스님이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는 9월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장학특전 대폭 확대 고무적 종단 인재양성 위해 최선"

조계종 장학위원장 보광스님



스님들의 면학 풍토를 다지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위원회가 맞을 올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위원장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중앙총회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장학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학위원회는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산하 기구로 지난 6월 제정 공포된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따라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심의·결정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장학위원장 보광스님(사지)은 "제33대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스님들에 대한 장학특전이 대폭 확대돼 고무적"이라며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은사 스님이나 문중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스님의

경우 유학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불교권 국가의 경우 스님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 장기적 차원 미래불사 기초학문 전공자 주목 종단의 장학사업 확대와 장학위원회 출범으로 스님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라시대의 원효스님과 의상스님과 같은 뛰어난 구법승을 이 시대에 배출하기 위해 장학위원 스님들과 열심히 될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해 장학금의 액수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입장이다. 해외유학 경험을 갖고 있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리라 여겨지는 종진 스님들을 장학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보광스님은 "지원의 초점은 종단의 미래불사에 참여하는 전공자에게 맞출 것"이라며 "누구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유학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장학위원 스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간에서 유행한다는 이유로 특정학문 지원에만 치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불교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fue@ibulgyo.com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법회 공고

직할교구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중령(112조) 중법(신도법 제36조)에 입각한 직할교구신도회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직할교구신도회 창립법회」개회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법회

- 가. 법회일정
 - 일시 : 2010년 8월 15일(일요일) 오후3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및 앞마당
- 나. 참석범위
 - 직할교구신도회 가입 사찰신도회

■ 직할교구신도회 가입 문의 및 접수

- 가. 제출서류
 - 직할교구신도회 가입 신청서 1부
 - 사찰 신도회 임원 명단 1부 -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부장 등
 - 사찰 신도회 회칙 1부 - 해당 사찰

※ 서식은 종단 홈페이지 <http://www.buddhism.or.kr>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 방문 시 서류파일(USB) 제출 또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mapark@buddhism.or.kr)
- 다. 문의 : 포교원 신도팀 행정관 박명수 ☎02-2011-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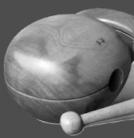
■ 향후 일정

※ 창립법회 이후 직할교구신도회의 운영 및 사업진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됨.

불기 2554(2010)년 8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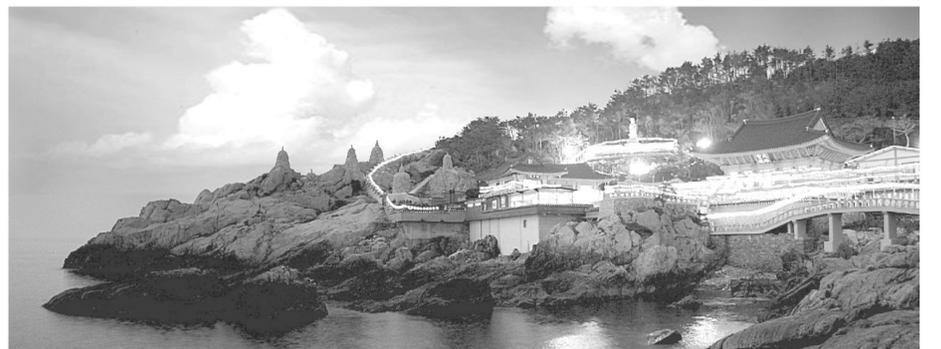
- 공동위원장 이연숙(조계사 신도회장), 이현수(도선사 신도회장)
- 준비위원 박종수(한마음선원 신도회장), 권태근(금강정사 신도회장)
- 임순자(사자암 신도회장), 장용숙(화계사 신도회부회장)
- 심태근(진관사 아버지회회장), 이영복(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부회장)
- 정재운(체육인불자연합회 서울지부회장)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 입장료 무료
- ▶ 주차장 완비
- ▶ 방생물 주문배달



해동용궁사
www.yongkungsa.or.kr
전화 (051) 722-7744, 7755